"워케이션 경쟁력 통한 생활인구 유치"

도, 읍면동에 워케이션·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추진
1개소당 최대 5억·2년간 균형발전센터서 운영 지원

제주자치도가 읍면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워케이션 빌리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유치시설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인구유치분야)' 공모를 이달 21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외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사업내용은 읍면동 내 유휴시설을 워케이션 빌리지, 스타트업 빌리지, 청년 빌리지 등 생활인구 유치시설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보유한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1개소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2년간은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 운영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와 분산근무 확대로 워케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청정 생태환경 등 국내·외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워케이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생활인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30대의 제주도 재방문율이 82.1%로 높은 만큼 워케이션, 청년빌리지 등 생활인구 유치 인프라를 구축해 젊은 세대와 기업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15분도시과(064-710-4762)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대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민선8기 이후 제주도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생활인구유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이번 공모에 행정시 및 읍면동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청년다다름사업 참여 모집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산하 제주청년센터는 내달 16일까지 1대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자립 지원사업인 '청년다다름사업' 도내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자립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도내 청년 중 아동복지시설·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양육 중인 한부모 등이다.

이태윤기자

봄비 내리는 제주 봄비가 내린 21일 제주시 이호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비옷과 우산을 쓰고 관광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 10년간 600만 그루 나무 심는다

당초 500만 그루서 목표 상향 2028년까지 추진

제주시가 2028년까지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제주시 인구 50만 달성을 기념해 2019년부터 10년간 500만 그루를 심기로 했지만 지난해 제주도가 2022~2026년 5년간 60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자체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취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에서 심은 나무는 237만 그루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 제주시는 2028년까지 600만 그루 식재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남은 기간 동안 363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올해 제주시의 목표량은 제주도 전체 120만 그루 중 67만 그루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600만 그루 나무 심기 자율 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식목일 기념 기관·단체 나무 나누어 주기,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시범 사업을 잇따라 펼친다.

'식목일 기념 기관·단체 나무 나누어 주기'는 식목일 전후로 나무 심기 행사를 계획 중인 기관이나 단체에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편백, 황칠, 산수유, 이팝 등 산림 수종과 조경수 묘목 3000여 그루를 지원한다.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 시범 사업'은 나무 심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조경수, 유실수 묘목 1그루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4월 10일쯤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제주시는 2023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에도 '새봄 새 희망 묘목 나눠 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때는 유실수 묘목 4000그루를 선착순으로 분양했다. 홍경찬 청정환경국장은 "제주시의 6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개별공시지가 3건중 1건 하향 조정

서귀포시, 지난해 322건 의견제출 중 98건

최근 3년간 서귀포지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따른 하향 요구가 절대적인 가운데, 실제 하향 조정된 사례도 3건 중 1건꼴로 적지 않은 실정이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의결제출 및 조정비율은 ▷2022년 의견제출 322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00건, 조정비율 31.05% ▷2021년 202건, 54건, 26.7% ▷2020년 162건, 66건, 40.7% 등이다.

지난해 의결제출 접수 중 상향 요구는 4건(1.2%)인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등의 사유로 하는 하향 요구는 318건(98.8%)으로 절대적이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상향 조정 2건, 하향 조정 92건, 나머지 222건은 제시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했다고 판단됐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 3건 중 1건은 하향 조정됐다. 다만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만에 7.08% 내려 하향 조정사례는 평년에 견줘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이날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대상 토지는 23만5908필지이며,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주택 3만5211호의 가격(안)에 대해서도 오는 4월 10일까지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관급공사 건설현장 안전 위반 '만연'

제주도 해빙기 맞아 도내 9개 현장 대상 표본점검
작업지침 미준수, 품질 관리 미흡 등 총 59건 적발

제주지역 관급공사 건설현장 내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관급공사 중 해빙기의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 현장 등 9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품질 관리 미흡,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관리 미흡 등 총 59건의 미흡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 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 대비 안전조치 이행상황을 비롯한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 시공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이번 합동점검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2주 안으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부 안전관리 미흡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시행해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도내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빙기 후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과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